

회 의 록

회의명		2024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일 시		2024. 7. 25.(목) 16:30 ~ 18: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심의안건		- [제6호] 2024 글로벌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회의결과		- 원안의결				
참 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참석 내역	참석자: 13명 최인호, 정세은, 홍장희, 조성환,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이찬술, 이한길, 전득수	불참 내역	불참자: 9명 강석구, 서연주, 노수림, 이왕록, 김운용, 김 담, 설현주, 윤다녕, 송채린
	참석자	13명				
	불참자	9명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13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4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6호</div> <div>○ 부의장(○○○): 제6호 안건 2024 글로벌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심의하겠습니다.</div> <div>○ 기획처장(○○○): 회의자료에 따라, 제6호 안건 설명.</div> <div>○ 의원(○○○): 추진과제 2번에 초격차 R&D가 지역 의학바이오, 국방융합 지원 인지?</div> <div>○ 기획처장(○○○): 다른 분야도 같이 지원하나, 특성화 분야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융합, 의약바이오를 중점적으로 넣었지만, 다른 분야도 포함시키기 위해 기초융합도 넣었음.</div> <div>○ 의원(○○○): 요약서의 올린공대와 공동 개발 교과목 10개가 실현가능한지?</div> <div>○ 기획처장(○○○): 이 부분은 상대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음.</div> <div>○ 의원(○○○): 외국인 유학생 수 1,380명, 앵커기업 육성 60건 등 2026년부터 이 성과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재정투자계획도 2024년 600억, 2025년</div>						

1,500억, 2026년 1,500억인데, 실현가능한 것인지?

- 기획처장(○○○): 재정투자계획은 글로컬 외에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쓰게 되어있음. 연구목표가 높은 것은 사실임.
- 의원(○○○): 목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재정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 기획처장(○○○): 그렇지않음. 수정계획서를 낼 수 있는데, 목표치에 대한 수정 계획서를 낸 학교의 경우, 예산이 50% 삭감됨. 앵커기업의 경우 정의가 중요한데, 기존 기업을 그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 다 포함하여 책정함.
- 의원(○○○): 통합대학 자회사 매출액에 연 600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양교에 자회사가 있는지?
- 기획처장(○○○): 우리 대학 가족회사, 기술지주회사 등 산단 소속 회사들이 있음. 48page 현재 값을 토대로 매출액 394억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600억으로 책정했음. 예비지정 혁신기획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의원(○○○): 94page 통합에 대한 부분을 “교명 충남대학교”, 캠퍼스별 특성화 원칙으로 통합, 캠퍼스 재배치에 대한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 기획처장(○○○): 이것 때문에 한발대와 계속 논의 중임. 94page 벤다이어그램으로 캠퍼스 재배치 관련 내용을 담아낸 것임. 한발대는 산학협력 연구 수준이 우리 대학의 3분의 1임. 과학기술 캠퍼스의 중심은 당연히 우리 대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발대는 한발대만의 특화를 잘해야 함. 94page 허브형 캠퍼스에서 “혁신 인재 양성 통합 학과”가 아니라, “혁신 인재 양성 학과” 등 캠퍼스 재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담아냄. 93page에 “충남대-국립한발대 통합대학교 교명을 원칙적으로 충남대학교로 하되, 양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예정” 정도로 넣음. 양교가 유사중복학과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큼. 현재 유사 중복학과의 30%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삭제하고, 한발대의 의견을 묻는 중임. 교육부에서는 통합에 관한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고 함.
- 의원(○○○): 한발대가 원하는 것은 50~100%인데, 유사 중복학과의 30%를 삭제하면 안됨. 오전에 진행된 대학혁신총괄위원회 때와 논의된 것이 다름.
- 기획처장(○○○): 현재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고, 삭제된다고 해서 큰 방향의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거의 하기로

애기가 됐는데, 유사중복학과 통합의 경우, 우리 대학은 30%, 한밭대는 100%를 요구하고 있음.

- 부의장(○○○): 한밭대가 100%를 요구하여, 조정된 것이 50%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 기획처장(○○○): 우리 대학이 처음 제시한 것은 자율적으로 사업 종료까지 20% 목표 추진이었음. 한밭대에서는 27년까지 50% 통합, 글로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50%를 통합해야 하고, 유사계열 통합학과는 한 캠퍼스에 있어야 하는 것을 주장 했음. 총장 담화문 내용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 중임. 제출 후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교섭도 해야 할 상황임.
- 의원(○○○): 이 계획서에서 문구만 조정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수정 없이 가는 것인지?
- 기획처장(○○○): 지금 가장 쟁점사항은 92-96page 부분임.
- 의원(○○○): 이 계획서가 한밭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 기획처장(○○○): 바뀌는 것은 없고, 우리가 여기서 물려서지 않겠다는 것임.
- 의원(○○○): 협상 후에 우리대학이 단독 혁신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 기획처장(○○○): 없는 것으로 어제 교육부에서 통보했음. 국립대학은 내년에 기회가 없다고 하였음.
- 의원(○○○): “통합대학교 교명을 원칙적으로 충남대학교로 하되, 양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예정”이라는 계획서의 내용과 총장이 제시한 원칙인 “통합대학교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한다”가 모순 되고, 유사중복학과 30% 통합의 내용을 계획서에서 삭제하면, 총장의 원칙인 “강제적 학과 통폐합은 추진하지 않는다” 및 “학사 조직의 강제적 캠퍼스 재배치는 추진하지 않는다”와 모순됨.
- 기획처장(○○○): 30%만 삭제한 것이지, “실천가능한 화학적 통합”등 이러한 문구들은 다 살아있는 것임.
- 의원(○○○): 여기 제시한 내용은 변명의 여지가 많게 들어가 있음. 이미 계획서에서 원칙이 훼손됨.
- 부의장(○○○): 상대교의 입장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대학의 의견대로 수용되었고, 두 번째 원칙에서 우리 대학은 30%를 고수하고, 상대교는 100%를 원함.
- 기획처장(○○○): 캠퍼스 재배치나 강제적 통합이 없는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담아냈음. 벤다이어그램을 상대교로 보냈을 때 반발이 거셌음.

- 의원(○○○): 30%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30%가 삭제된다면 명확하게 원칙 위반임.
- 기획처장(○○○): 상대교에서 더 크게 반대할 것임. 적어도 오후 8시까지는 결정되어야 하는데, 상대교에 오후 6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음.
- 부의장(○○○):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한 것도 어려웠음. 상대교에도 명분을 줘야 함.
- 의원(○○○): 상대교는 교명을 여러 번 바꾸었기 때문에 교명은 큰 명분이 안되고, 캠퍼스 재배치를 협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기획처장(○○○): 상대교에서는 통합 속도와 캠퍼스 재배치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우리대학은 구성원에게 약속한 부분이라 안된다고 배수진을 쳤음.
- 의원(○○○): 지금 이 계획서의 30%로 그대로 낼 것인지?
- 기획처장(○○○): 상대교의 답을 기다리고 있음.
- 의원(○○○): 오전에 대학혁신총괄위원회 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학평의원회 때까지 기다림. “통합대학교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되”가 아닌 “충남대학교로 한다”가 되어야 함. 30%의 경우도 같음. 총장과 기획처장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과 담화문을 보고 힘을 실기 위하여 조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임. 약속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시켜주기를 바람.
- 기획처장(○○○):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음. 세 가지 원칙은 교섭 과정 중에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봐주기를 바람. 실무자 입장에서 교섭하다 보면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와서, 30% 삭제를 제안했던 것임.
- 의원(○○○): 30%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하는 것이 어떨지?
- 의원(○○○): 이 안 그대로 심의 제안함. 미래의 안을 가지고 심의할 수 없음. 내일 아침에 합의안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총장이 제출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음. 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위원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는데, 위원회는 총장 결정사항을 규정에 근거해서 심의하고, 찬성할지 반대할지만 정하는 것임.
- 기획처장(○○○): 30%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통합의향을 물어봤을 때 나온 수치임.
- 의원(○○○): 3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30%가 1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강제성이 강화됨.

재배치도 비용 문제가 있는데,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늘어나서 추정할 수 없는 수준임. 충북대도 재배치 때문에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음.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 기간 내내 서로 논쟁하는 상황이 생김.

- 의원(○○○): 통합학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 예산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렇다면 비유사학과는 정부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 기획처장(○○○): 국립대학육성사업, 글로컬사업, RISE사업도 있어서 각 사업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임. 통합학과에 대해서는 좋은 통합 모델을 위해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임.
- 부의장(○○○):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에 동의하는지?
- 의원(○○○): 이 안에서 변화가 없는지?
- 부의장(○○○): 현재 주어진 자료로 심의할 수밖에 없음.
- 의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것인지?
- 기획처장(○○○): 통합의향이 있는 학과들끼리 논의를 해보지 않았음. 24page 앞에 보면 통합의 의사가 있는 학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일대일 매칭해서 학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캠퍼스 위치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없음. 유사중복학과에 대한 정의를 양교가 합의를 보고, 의향이 있는 학과들끼리 논의를 해야 함.
- 의원(○○○): 우리는 심의자료대로 “유사중복학과 30%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임의 규정일 수도 있는 내용임. 이 내용 그대로 심의해야 함.
- 부의장(○○○):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 폐회